



한·터키 FTA 협상 개시와 의의

성 한 경 무역투자정책실 부연구위원 (hsung@kiep.go.kr, Tel: 3460-1181)

이 철 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(cwlee@kiep.go.kr, Tel: 3460-1071)

오 태 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(asroc101@kiep.go.kr, Tel: 3460-1159)

1. 한·터키 FTA 협상 개시와 예상 경제효과
2. 터키의 잠재력
3. 한국과 터키의 경제관계
4. 한·터키 FTA 협상 개시 의의와 시사점



주요 내용

- ▶ 2010년 4월 26일 한국과 터키 양국간의 FTA 1차 협상이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됨.
- 2008년 6월~2009년 5월 한국 측(KIEP)과 터키 측(대외 무역청)의 FTA 추진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 결과 양국간의 FTA가 상호 이익 증진 및 협력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음이 합의됨.
- 한·터키 FTA가 발효되면, 한국의 GDP는 0.01~0.03%, 후생수준은 1억 6,000만~2억 8,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- 터키는 G-20 회원국이자 브릭스(BRICs)를 이은 새로운 신흥시장그룹에 항상 포함되는 국가로 △ 지정학적 중요성 △ 시장잠재력 △ 거대시장 진출 교두보 등을 고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음.
- ▶ 한국과 터키의 교역은 꾸준히 확대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세를 보임.
- 한국의 대터키 수출은 자동차부문의 비중(20% 이상)이 높은 반면에 대터키 수입은 석유제품의 비중이 높고 최근 자

동차부품, 계측제어분석기, 곡실류 등의 수입이 급증함.

- 양국간 투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그 규모는 미미한 편임.
- 한국은 터키 시장의 제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, 터키는 한국 시장의 농림수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.
- ▶ 한·터키 FTA는 EU 및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, 신흥국과 추진하는 최초의 FTA라는 데 의의가 있음.
- 한·터키 FTA 협상이 잠재력 있는 신흥국가와의 FTA 협상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.
- 한·터키 FTA 협상이 상품뿐만 아니라 잠재력 있는 서비스 개방 및 투자안전보장, 에너지, 건설, 교통 등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및 관련 산업별 협력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.
- 또한 한·EU FTA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한·터키 FTA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.

1. 한·터키 FTA 협상 개시와 예상 경제 효과

가. 한·터키 FTA 협상 개시

■ 2010년 3월 19일 한국과 터키 양국 통상장관이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하여, 오는 4월 26~30일간 터키 앙카라에서 1차 협상이 개최될 예정임.

- 한국과 터키는 양국간 FTA 추진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한 후 2008년 6월~2009년 5월 한국 측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과 터키 측 대외무역청에 의해 FTA 추진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가 이루어짐.

○ 공동연구 결과 양국간의 FTA가 상호 이익증진 및 협력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음이 합의됨.

- 한국은 2010년 2월 19일 한·터키 FTA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한·터키 FTA 출범을 결정함.

■ 한·터키 FTA 협상 개시는 한·EU FTA 협상 진전에 따른 터키 측의 요구가 크게 작용했음.

- 2007년에 한국의 대터키 수출은 약 41억 달러, 수입은 약 3억 달러로 터키 입장에서 극심한 무역역조를 보이고 있음.

○ 2008년 이후 무역역조가 개선되기는 했으나 무역역조 규모는 여전히 큼.

- 1995년 이래로 EU와 관세동맹 하에 있는 터키 입장에서 한·EU FTA가 발효되는 경우 한국에 대해 상품관세를 일정 부분 철폐해야 하므로, 무역역조가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.

○ 실제로 터키는 EU가 FTA를 맺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경우가 많음.

표 1. 터키의 FTA 추진 현황

| 현황 | 국가 |
|---------|---|
| 발효 및 서명 | EFTA(1992), EU(1996), 이스라엘(1997), 마케도니아(2000), 크로아티아(2003), 보스니아(2003), 튀니지(2005), 팔레스타인(2005), 모로코(2006), 시리아(2007), 이집트(2007), 알바니아(2008), 그루지야(2008), ECO*, 몬테네그로, 세르비아 (2009), 요르단(2009), 리비아(2009) |
| 협상 중 | 칠레, 페로제도[덴마크령], 레바논, GCC, 인도, MERCOSUR |
| 검토 중 | 우크라이나, 멕시코, 남아프리카공화국, 알제리, ASEAN, 중남미 국가 및 ACP |

주: 2010년 상반기 현재

* ECO(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): 이란, 터키, 파키스탄, 아프가니스탄, 아제르바이잔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타지키스탄, 투르크메니스탄, 우즈베키스탄 등 10개국으로 구성, 회원국 간 교역상품의 80%를 커버하는 ECOTA(ECO Trade Agreement; 2003년 7월 서명, 미발효), ECO 자유무역지대(Free Trade Area; 2015년 완성 목표)를 설립하기 위한 것임. ECO의 대외무역은 2007년 기준 약 5,700억 달러에 달하고, 역내무역은 같은해 기준 330억 달러임.

나. 한·터키 FTA 예상 경제효과

■ GTAP 표준모형을 이용한 연산가능일반균형(CGEM)모형 분석결과에 따르면, 한·터키 FTA는 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.

■ 한·터키 FTA 발효로 양국의 제조업 관세가 모두 철폐되면, 한국의 실질 GDP는 0.01~0.03%, 후생수준은 1억 6,000만 ~ 2억 8,000만 달러 증가함.

- 단기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정태모형에서 한국의 실질 GDP가 0.01% 증가하고 후생수준이 1억 6,000만 달러 개선됨.

- 중장기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자본축적모형에서는 한국의 실질 GDP가 0.03% 증가하고 후생수준이 2억 8,000만 달러 개선됨.

표 2. 한·터키 FTA 발효 시 예상되는 거시경제효과

(단위: 실질 GDP %, 후생수준변화 억 달러)

| 구분 | 정태모형 | 자본축적모형 |
|---------|------|--------|
| 실질 GDP | 0.01 | 0.03 |
| 후생수준 변화 | 1.62 | 2.78 |

주: 한·터키 FTA 공동연구 결과(한국 측) 일부 인용, 제조업 관세 100% 철폐 시.

■ 한·터키 FTA가 제조업 개방뿐만 아니라 농수산업 및 서비스 시장 개방, 투자 확대 등을 포괄하고, 터키시장이 가진 잠재력까지 고려한다면 예상되는 한·터키 FTA 발효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예상보다 더 클 수 있음.

2. 터키의 잠재력

■ 터키는 G-20 회원국이자 브릭스(BRICS)에 이은 새로운 신흥 시장그룹에 항상 포함되는 국가임.

- 터키는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후 세계 경제질서의 중심이 된 G-20에서 한국과 더불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교량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.

○ 터키는 G-20 회원국 중 기후변화, DDA 등 한국과 공통 관심 사항이 많은 국가임.

- 브릭스에 집중되었던 국제투자 흐름도 점차 다른 신흥시장으로 다각화되고 있음.¹⁾

○ 2006년 KIEP에서는 수출 유망 20개국을 선정,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평가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.²⁾

○ 이 연구에서 터키는 성장성과 잠재성 지표는 중상위권, 시장성 지표는 상위권에 위치해 향후 협력 강화가 유망한 국가군에 선정되었음.

■ 터키는 △ 지정학적 중요성 △ 시장잠재력 △ 거대시장 진출 교두보 등 신흥시장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고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.

-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, 중동의 사이에 자리잡고 있음.

○ 보스포러스 해협이 유럽과 아시아를 구분하고 있고, 지중해 건너편은 북아프리카이며, 흑해 건너편은 동유럽과 연결됨.

- 터키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 2002~07년 평균 7%대의 고성장을 기록하였으며, 인구규모 또한 7,583만 명으로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음.³⁾

1) 최근 신흥시장을 'Post BRICs'를 지칭하는 신조어들이 등장하고 있음.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인도 시장의 대안으로 TVT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으며, 이밖에도 E7, NEXT-11, BEM, VISTA 등이 유망한 신흥시장을 새롭게 정의하는 용어들임.

| | |
|---------|---|
| NEXT-11 | 터키, 방글라데시, 이집트, 인도네시아, 이란, 멕시코, 나이지리아, 파키스탄, 필리핀, 베트남, 한국 |
| BEM | 터키, 멕시코, 브라질, 아르헨티나, 남아프리카공화국, 폴란드, 인도, 중국, ASEAN, 한국 |
| VISTA | 터키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남아프리카공화국, 아르헨티나 |
| TVT | 터키, 베트남, 태국 |
| E7 | 터키, BRICs, 인도네시아, 멕시코 |

2) 수출 유망 20개국을 대상으로 시장성, 성장성, 협력성, 잠재성 등 크게 네 가지 지표에 대해 누적분포, 최대, 최소 등 다양한 방법과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한 바 있음.

표 3. 터키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

(단위: 십억 달러, %)

| 연도 | 2004 | 2005 | 2006 | 2007 | 2008 | 2009 |
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
| 경제성장률 | 9.4 | 8.4 | 6.9 | 4.7 | 0.9 | -6.0 |
| GDP | 3,922 | 4,830 | 5,309 | 6,471 | 7,299 | 6,207 |
| 1인당 GDP | 5,420 | 6,930 | 7,540 | 9,090 | 10,150 | 8,550 |

자료: IMF, OECD.

-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위치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, 숙련된 노동력 확보 용이 등의 이유로 다국적기업들이 선호하는 진출지역 중 하나임.

○ 독일, 영국을 비롯한 EU 국가들은 물론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EU 확대에 대비하여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터키로 대거 이전시켜왔음.⁴⁾

■ 터키는 자원부국인 중동의 이슬람국가들 및 중앙아시아국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.

- 터키는 이슬람개발도상국8개국회의(D-8) 및 회교권경제협력기구(ECO)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슬람국가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.

- 최근 터키의 건설업체들은 카자흐스탄, 우즈베키스탄 등 터키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문화적, 종교적 깊은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이 국가들의 대규모 건설프로젝트를 대부분 독점하고 있음.

3. 한국과 터키의 경제관계

가. 교역 및 투자 관계

■ 터키와의 교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시작되었으며 다소의 등락은 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꾸준히 확대되어왔음.

- 1997년 처음으로 교역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2000년대 초반 급격한 성장세가 두드러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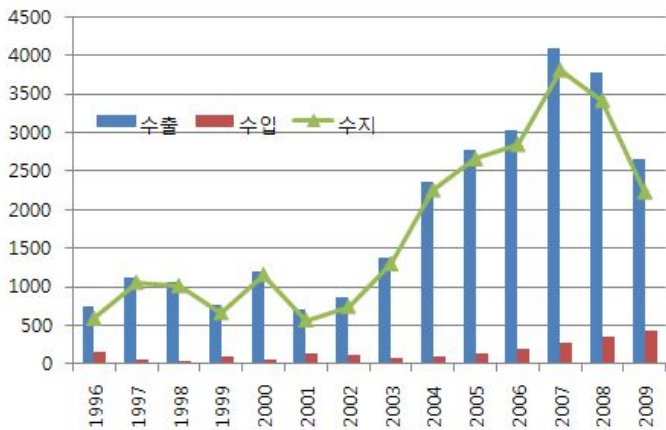
3) 터키는 인구규모가 클 뿐 아니라 현시 선호 생활방식으로 국민들의 소비성향도 높은 편으로 알려짐.

4) 현대자동차, Ford, Renault, Toyota, Fiat, 현대자동차, Royal Dutch Shell, Exxon Mobil, BP, Microsoft, Oracle, IBM 등이 터키에 생산기지를 이전했음.

- 전통적으로 한국은 터키와의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해왔고, 2007년에는 사상 최고인 약 3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.
- o 2000~07년 사이 한국의 대터키 수출은 매년 평균 약 25% 증가해왔음.
- 그러나 2008년과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의 대터키 수출은 감소하였고, 대터키 투자 증가에 따른 산업 내 교역 증가로 인해 수입은 증가하였음.

그림 1. 한·터키 교역 추이

(단위: 백만 달러)

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- 2008년 상위 10개 수출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6%로 대터키 수출은 일부 품목에 집중되어 있음.
- 특히 2008년 한국의 대터키 수출 중 자동차부품(자동차부품, 자동차)의 비중이 20% 이상을 차지했음.

표 4. 한국의 대터키 상위 10대 수출품목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| 품목 | 2008년 | | 2009년 | |
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
| | 금액 | 증가율 (전년대비) | 금액 | 증가율 (전년대비) |
|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| 377 | 17.5 | 290 | -23.0 |
| 자동차 | 410 | -39.6 | 288 | -29.9 |
| 합성수지 | 310 | -2.3 | 217 | -29.8 |
| 철강판 | 289 | 88.3 | 215 | -25.7 |
| 자동차부품 | 417 | 44.7 | 179 | -57.1 |
| 무선통신기기 | 195 | -55.6 | 124 | -36.3 |
|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| 73 | -77.8 | 70 | -2.9 |
| 플라스틱제품 | 67 | 3.3 | 65 | -3.2 |
|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| 57 | 36.8 | 62 | 10.3 |
| 컴퓨터 | 35 | -42.5 | 59 | 68.6 |

주: MTI 3단위 기준.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- 대터키 수입도 2002년 이후 일부 다각화되었으나 여전히 특정 품목에 집중되어 있음.

- 2002년 이후 대터키 수입에서 원유수입에 대한 편중이 줄어들었으나, 상위 10개 수입품목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5.6%에 이룸.
- o 2008년 이후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, 자동차부품, 석유제품, 의류 등임.
- 최근 한국의 대터키 자동차부품 투자 증가에 따라 터키에서 제조되는 자동차부품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자동차부품의 역수입이 증가함.

표 5. 한국의 대터키 상위 10대 수입품목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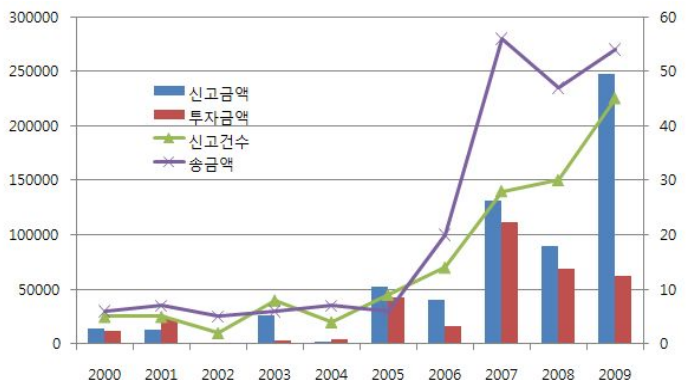
| 품목 | 2008년 | | 2009년 |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
| | 금액 | 증가율 (전년대비) | 금액 | 증가율 (전년대비) |
| 원유 | 362 | 28.5 | 434 | 20.0 |
| 자동차부품 | 19 | 17.6 | 82 | 324.2 |
| 석유제품 | 106 | 278,031.4 | 38 | -64.6 |
| 의류 | 30 | 26.7 | 24 | -18.5 |
| 선재봉강 및 철근 | 0 | - | 19 | - |
| 기호식품 | 14 | -3.4 | 19 | 32.5 |
| 기타 비금속광물 | 15 | 28.1 | 15 | -3.8 |
| 계측제어분석기 | 1 | 29.3 | 7 | 605.8 |
| 곡실류 | 3 | 32.0 | 6 | 100.3 |
| 무선통신기기 | 6 | 390.8 | 6 | -0.1 |

주: MTI 3단위 기준.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- 한국의 해외직접투자(2009년 3월 말 기준) 중 대터키 직접투자 비중은 약 0.3% 수준(4억 5,500만 달러)으로 전체 45위를 차지하고 있음.

그림 2. 한국의 대터키 투자

(단위: 천 달러)



자료: 한국수출입은행.

- 한국의 대터키 투자 중 77.2%(약 3억 5,111만 달러)가 제조업 투자에 집중되어 있음.
- o 자동차에 대한 투자가 1억 5,683만 달러로 전체 제조업 투자의 44.7%를 점하고 있고, 담배(25.5%), 1차 금속(9.6%), 화학(9.6%)이 뒤를 이음.
- 그 외 도소매업과 광업에 각각 7,093만 달러(15.6%)와 2,900만 달러(6.4%)가 투자됨.

표 6. 한국의 대터키 업종별 투자

(단위: 천 달러, 전체 비중)

| | 투자건수 | 투자금액 | 비중(%) |
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|
| 농림어업 | 1 | 230 | 0.1 |
| 광업 | 6 | 29,000 | 6.4 |
| 제조업 | 111 | 351,110 | 77.2 |
| 건설업 | 3 | 2,044 | 0.4 |
| 도소매업 | 16 | 70,932 | 15.6 |
| 운수업 | 1 | 500 | 0.1 |
| 부동산업 및 임대업 | 5 | 550 | 0.1 |
|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| 6 | 554 | 0.1 |
| 총합 | 149 | 454,919 | 100.0 |

주: 2009년 3월 말 기준.

자료: 한국수출입은행

- 터키의 대한국 투자는 736만 5,000달러(2009년 3월 말 기준)로 한국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0.005%에 불과함.
- 터키의 대한국 투자 역시 투자금액의 70.5%(519만 달러)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음.

나. 산업별 경쟁력 변화

- 대세계 경쟁력(RCA) 분석에서 한국과 터키는 모두 금속 1차 제품과 자동차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한국은 금속 1차 제품, 전기기기 및 부분품, 정밀기계제품, 자동차, 기타 운송장비에서 높은 대세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.
- 그러나 한국은 섬유 및 의류, 일반기계 및 장비에서 점점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, 농림수산물, 기타 공산품, 음식료품 및 담배, 목재 및 종이제품에서는 낮은 경쟁력을 보임.
- 터키는 전통적으로 강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섬유 및 의류를 포함하여 금속 1차 제품, 비금속광물제품, 자동차 등에서 높은 대세계 경쟁력을 보임.

- 시장경쟁력(MCA) 분석에서 한국은 터키시장에서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등 제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, 터키는 한국 시장의 농림수산업 등에서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.

- 한국은 터키시장에서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이외에 섬유 및 의류제품, 일반기계 및 장비, 정밀기계제품, 자동차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.

- 터키는 한국시장에서 농림수산물 이외에 음식료품 및 담배, 광산품,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, 가죽제품, 비금속광물제품, 일반기계 및 장비, 정밀기계제품 등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음.⁵⁾

- 수출경쟁력(TSI) 분석에서 한국은 농림수산물, 음식료품 및 담배, 광산품과 가죽제품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대터키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- 한국은 터키에 대해 금속 1차 제품, 정밀기계제품, 자동차에서 완전한 수출특화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음식료품 및 담배와 가죽제품에서는 수입특화가 심화되고 있음.

표 7. 한국의 산업별 수출경쟁력 동태 분석

| | 경쟁력 분석 | 한국 | |
|--------|-----------|--|---|
| | | 대세계 | 대터키 |
| 경쟁력 강화 | 수출주력제품 |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, 전기기기 및 부분품 |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, 금속 1차 제품, 자동차, 정밀기계제품 |
| | 수출전략제품 | 정밀기계제품 | - |
| | 수출상품화 가능성 | 음식료품 및 담배, 광산품 | 농림수산물, 광산품 |
| 경쟁력 약화 | 수출경쟁력 약화 | 섬유 및 의류, 일반기계 및 장비, 자동차, 기타 운송장비 | 목재 및 종이제품, 섬유 및 의류, 비금속광물제품, 일반기계 및 장비, 전기기기 및 부분품, 기타 운송장비, 기타 공산품 |
| | 수입특화로 전환 | - | - |
| | 수입특화 심화 | 농림수산물, 가죽제품, 목재 및 종이제품, 비금속광물제품, 금속1차제품, 기타공산품 | 음식료품 및 담배, 가죽제품 |

주: 2007년 기준임.

5) 단 터키의 대한국 수출규모가 매우 작고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터키의 MCA는 일정하지 않게 나타남.

4. 한·터키 FTA 협상 개시 의의와 방향

가. 협상 개시 의의

■ 한·터키 FTA는 한국기업들이 터키를 EU 및 아프리카 진출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.

- 터키는 EU와 경제관계를 심화시키면서 무역 관련 제도나 규정들이 국제표준에 준하게 정비해왔기 때문에 앞서 언급되었듯이 EU 시장을 겨냥한 선진국 기업들의 생산기지로서 환영받아왔음.

- 터키는 지정학적으로 아프리카에 접해 있으면서도 비교적 안정된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이 터키를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수출 및 투자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음.

■ 한·터키 FTA는 한국이 풍부한 잠재력을 가진 포스트 브릭스 국가와 추진하는 최초의 FTA임.

- 한국은 브릭스 국가들과 이미 FTA를 발효시켰거나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한·터키 FTA 개시가 한국의 FTA 대상국을 신흥시장으로 확대시킨 데에 의의가 있음.

나. 협상 추진방향

■ 한·터키 FTA 협상은 잠재성 있는 신흥국과 개시하는 최초협상인 만큼 향후 브릭스 및 포스트 브릭스 국가들과의 FTA 협상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.

- 한국은 이미 인도와 CEPA를 발효시켰으나, BRICs 국가 중 중국, 러시아, 브라질(MERCOSUR) 등과의 FTA에 대해서는 준비단계에 있음.

- 비교적 양허수준이 낮았던 한-인도 CEPA의 경우에도 2010년 1월 발효 이후 지난 2개월 간 양국간 교역이 급증했듯이 잠재성이 큰 신흥시장과의 FTA의 경제효과는 예상보다 클 수 있음.

- 따라서 신흥국과의 FTA 협상과정에서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개방, 투자, 경제협력방안, 비관세장벽 등에 포괄적인 주제가 협상에서 논의되고, 높은 수준의 교역자유

화가 관철된다면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.

○ 앞선 CGE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제조업 관세철폐만을 고려한 한·터키 FTA의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이므로 협상의 주제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음.

■ 한·터키 FTA 협상이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개방 및 투자 안전보장을 논의하도록 진행되어야 함.

- 한국의 대터키 주력 수출품에 대한 상품관세수준은 약 3.5% 수준이고,⁶⁾ 한·EU FTA가 발효될 경우 EU에 준하게 관세를 철폐하게 되므로 한·터키 FTA에서 상품관세협상의 중요성은 다른 FTA 협상에 비해 낮음.

- 그러나 터키의 젊은 인구구조와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서비스 시장의 잠재성이 높으므로 FTA 협상에서 터키 서비스 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한국 기업의 시장 확보에 주력해야 함.

- 대터키 투자는 아직 미미한 규모이나 시장잠재성을 고려하면 향후 확대가 예상되므로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을 FTA에 포함시켜 한국 기업의 대터키 투자안정성을 보장해야 함.

○ 터키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산업 내 교역이 한국과 터키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듯이 대터키 투자관계는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.

○ 터키는 금융부문의 부실, 정책투명성 결여, 만성적인 경상수지 등 경제적인 불안요인이 있으므로⁷⁾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FTA 협상에서 높은 수준의 투자보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.

■ 한·터키 FTA 협상 의제로 에너지, 건설, 교통 등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 및 관련 산업별 협력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함.

- FTA 협상에서는 교역 및 투자 장벽 철폐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경제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음.

- 현재 터키가 추진 중인 발전설비 건립, 중앙아시아 에너지 개발, IT, 통신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한국 기업이 참

6) 한국의 10대 수출품목(HS 2단위)에 대한 평균 관세율임.

7) 터키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금융위기를 겪었음.

여할 수 있음.

- 발전설비 건립, 중앙아시아 에너지개발사업 등에 국내 관련 업체나 엔지니어링 기자재 업체 진출이 가능함.
-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에 언타이드(Untied) 방식의 유상원조 또는 혼합 수출신용(Mixed Export Credit)방식의 ODA 지원 등의 형태로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 및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음.
- 그 외에 대터키 투자 확대와 함께 인력 지원, 공동연구개발 등의 방법으로 산업별 협력방안을 FTA 협상에서 논의할 수 있음.

■ FTA 협상에서 터키 측은 한국과의 무역역조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.

- 앞서 언급했듯이 터키 입장에서 한국과 터키 간 무역역조가 심각하고, 터키가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음.
- 터키의 대한민국 수출유망상품들에 대한 수입 확대를 고려하되, 산업 내 수직적 분업화 구조를 통해 한국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.
- 최근 대터키 투자 증대로 인한 한국과 터키의 산업 내 교역을 활성화가 양국간 무역역조를 일정 부분 개선시킨 바 투자 확대를 통한 무역역조 해소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.

■ 한·터키 FTA 협상은 현재 추진 중인 한·EU FTA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.

- 한·EU FTA 진전이 터키가 한국과 FTA 협상을 서두르는 중요한 요인이므로, 한·터키 FTA 협상을 한·EU FTA 서명 및 비준 진행 상황과 연계하여 진행시켜 협상 주도권을 유지해야 함. **KIEP**